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72호 [루게 제24585호] 주제 103 (2014)년 6월 21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조선속도 창조 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어랑천 5호발전소건설 힘있게 추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인을 다그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어랑천발전소건설장에 조선속도창조의 기상이 세차게 나뉘어가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이곳 건설자들의 양양된 열의속에 발전소건설장에서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다.

지금 이곳 건설자들은 집단적혁신의 열풍을 일으키며 어랑천 5호발전소물길공사물길 짧은 기간에 와 다탈 해제건설이 이어 잠판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올해중으로 어랑천 2호발전소의 조업을 보장하는것과 함께 어랑천 5호발전소 잠판공사를 다그쳐 끝낼 통 큰 목표를 세우고 그 수행에 도전자들을 불러일으켰다.

한영일, 최원학동무를 비롯한 건설지휘부원들은 방대한 잠판공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가고 있다.

건설지휘부원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적극 발동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발전소건설이 립체적으로 진행

되는데 맞게 주타격대상을 바로 정하고 력량편성을 합리적으로 짜고들고있다. 일군들의 힘있는 정치사업과 이신작적은 건설자들을 총동력으로 불러일으키고 있다.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데 대한 당의 투쟁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전투원들의 양양된 열의로 하여 온 공사장이 끓어번지고있다.

잠판공사를 맡은 어랑천개발 전투원들은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심장에 새겨안고 방대한 공사를 앞당겨 끝낼 열의에 넘쳐 힘찬 돌격전을 벌이고있다. 그들은 콘크리트타입장으로 매 없이 물이 흘러드는 어려운 속에서도 굴착과 타입전투를 중단 없이 내밀며 매일 멀려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이등식 회동조립을 비롯한 앞선 건설공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60일동안에 6 000m³의 토량을 처리하고 100여m구간의 잠판공사를 끝내는 로력적위훈을 창조하였다.

공사초기에 잠판이 들어앉게 될 토선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공사기일을 앞당길수 있게 한 기술자들과 전투원들은 전투장마다에서 여러가지 공법과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공사속도를 계속 높여나가고있다.

군책임일군들을 비롯한 어랑천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잠판공사를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군의 녀맹원들은 녀맹돌격대를 뚫고 공사장에 달려가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다.

특파기자 리 은 남



어랑천 발전소 건설장에서 - 본사기자 역음

몸에 꼭 배야 할 정신과 열정

◇ 오늘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낮과 밤은 어떻게 흐르고있는가.

색이 바랜 항일유격대식배낭, 포전의 흙이 묻은 신발, 기계기름이 배인 손, 해벌에 탄 얼굴... 여기가 사상전의 포성을 팽팡 울려가고있는 당사상일군들의 고상한 정신적풍모가 어려웠다.

인주시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당정책을 심장에 안고 마지막 마을 마지막 한사람까지! 이것이 우리 일군들이 받들길 걸을 때의 심정이다.»** 그 길에 나서기 전에 우리는 피라게 학습하고 또 학습한다. »고 말했다.

이것은 당사상일군들이 지녀야 할 정신과 열정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가슴깊이 새긴 우리의 모든 당사상일군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목소리를 제때에 알려주기 위해 하루밤에도 수심리길을 걷는 정신, 열백발을 패가며 당정책을 학습하고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열정이 당사상일군들의 몸에 꼭 배야 합니다.»**

당사상일군들은 사상전선의 전초병, 기술이다. 대오의 앞장서는 혁명의 목소리를 높이 울려야 할 사상일군들은 누구보다 정신세계가 높고 심정이 뜨거워야 한다. 당의 사상관철, 당정책을위해 떨쳐나선 사상일군들의 높은 정신세계는 대중의 거울이며 사상일군들의 불타는 열정은 전진하는 대오의 활력이다.

◇ 당사상일군들의 몸에 꼭 배야 할 정신은 당의 목소리를 제때에 알려주기 위해 하루밤에도 수심리길을 걷는 정신이다. 항일유격대정치일군, 선전일군들은 사명관동지의 작전적구상과 로선, 방침을 대중속에 하루빨리 전달해야 한다는 자제와 필장을 가지고 언제나 투쟁해야 한다. 정치공작원들은 산관이나 농촌, 공장이나 공사장 등 공중이 있는 곳이라면 밤길도 마다 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곤 하였다. 하여 이들의 발자국이 찍힌 고장들은 혁명열로 뚫어 넘치고 전진행진의 보루로 전변될수 있었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

당사상일군들은 시련이 겹겹이고 투쟁과업이 방대할수록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를 누구보다 가장 민감하게, 가장 정확히 받아들이며 당의 목소리를 즉시에 하루말단까지 전달하는 사상적제일군위엄이 되어야 한다.

100명중 99명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전달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단 한명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다고 해도 그날 밤중에 다시 되돌아가 당의 목소리를 알려줌으로써 도시와 농촌, 심심산골의 모든 사람들이 당정책을 속속들이 알게 하여야 한다.

◇ 사상일군들은 열백발을 패가며 당정책을 학습하고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열정이 몸에 꼭 배야 한다.

연세인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의 기초조직시기에는 일군들과 손을 잡고 일할 것이 있었다고, 그들은 자신께서 한번 눈짓만 하여도 그 의도를 인차 알아차리고 직접 뛰어다니면서 밤을 새워가며 일을 책임적으로 해제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당의 기초조직시기의 일군들은 당에서 내놓은 로선과 정책을 제 집안일처럼 환히 알고있을뿐만아니라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열정의 인간들이었다. 때문에 무슨 일에서나 딱히 는데가 없었고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대로 충직하게 일할수 있었다.

당사상일군들은 당의 기초조직시기의 일군들처럼 당의 사상과 의도를 정확히 알기 위해 당정책을 꾸준히 학습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열백발을 지새우는 정열가가 되어야 한다.

매 시기 제시되는 당정책의 진수를 파악하고 현대과학기술과 자기 부문 사업에 정통한 일군, 혁신적안목으로 세계적인것을 창조하기 위한 지식을 습득하며 방잡과 폐식을 잊고 자신을 강하게 불태우는 열정의 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참된 진우, 진정한 동지가 될수 있다. 전제 당사상일군들이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높은선 정신세계와 혁명열로 넘쳐 넘치고 전진행진의 보루로 전변될수 있었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

석탄생산성과 계속 확대

개천지구관광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해부,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야 합니다.»**

개천지구관광련합기업소에서 석탄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오르고있다. 평안남도당위원회 지도도에 면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탄광들에서 굴진을 확고히 하세워 매장량이 많고 재물조건이 유리한 탄광들에 력량을 집중하도록 하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은 각 탄광들을 맡고 갱막강들에 들어가 더 높은 석탄생산으로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는 돌격전의 기수,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탄부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당일군들은 탄부들속에 들어가 인민군대의 투쟁정신과 투쟁기상을 따라배우도록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그들모두가 오늘의 보람된 투쟁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적극 떨쳐주려고한다.

참모부의 일군들은 들끓는 막장에 들어가 화전식정치사업을 벌이고 생산지휘도 하면서 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도에 면합기업소의 일군들은 탄광들의 생산실태와 설비, 자체보장정형을 매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탄차와 탄차바퀴, 부속품, 후방물자들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어 진행해나가고있다. 이렇듯만도 면합기업소에서 탄광들에 탄차, 조구용철관, 탄차배어리 등을 보장해주어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길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일군들부터가 앞장에서 석탄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속에 생산실적이 계속 높아지고있다. 자강도공급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석탄생산에서 앞서나가고있다.

탄광의 일군들은 중대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총화평가사업을 실시있게 진행하여 탄부들의 생산의욕을 부쩍 높여주었고, 탄광정, 청년경, 5경, 2경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여러가지 앞선 제반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운반능력을 높여 매일 계획보다 더 많은 석탄을 캐내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개천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개천탄광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석탄생산에서 편일 력

신을 일으키고있다. 세계경, 전진 2경, 전진경의 일군들은 생산량이 많은 막장들에 력량을 집중하고 막장조건, 설비가정형 등을 수시로 료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움으로써 일 석탄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특히 갱들에서는 운반선로들을 정상적으로 정비보수하고 전차, 탄차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재고를 낮추고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도록 하고있다.

조양탄광에서도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석탄생산을 계속 높여나가고있다. 3경, 1경을 비롯한 탄광의 모든 갱들에서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기풍이 발휘되는 속에 갱도보수와 운반설비들에 대한 점검보수가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어 탄부들의 중산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봉천탄광, 선림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경제강국건설의 전초선에 섰다는 자각을 안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맞받아왔고나가면서 석탄생산을 앞당기게 내밀고있다.

특파기자 리 혁철

동물사들의 기본골조공사를 끝냈다

중앙동물원 개건 보수공사장에서

업적이 깃들여있는 중앙동물원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전면시공을 직접 맡기하고 동물원을 인민들의 문화적생활거점단위로 훌륭히 꾸리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공사에 참가한 여러 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높이 받들고 공사를 시작하지 얼마 안되는 기간에 현장의 모습을 몰라보게 변모시켰다.

원수님과 파총류, 맹진세를 비롯한 회귀하고 다양한 동물들이 보금자리를 펴게 될 수습기 등에 달하는 동물사의 골조공사는 자랑스러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번엔 새로 건설되게 개건확장되는 특색이 다양한 동물사들의 골조공사가 전부 계속됨으로써 대성산기사의 100여경에 달하는 중앙동물원에는 새롭고 이채로운 모습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에서 선구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수준의 훌륭한 건축물들과 인민들의 생활조건개선을 위한 건설을 맡아야 하며 자립경제의 로대를 틀어쓰고 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쾌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대상들이 나가 건설자, 기술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높여주기 위한 화전식정치사업을 진중적으로 벌이고있다.

공사장전역에서 시공단위별 사회주의경쟁열풍이 휘몰아치는 속에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을위해 힘차게 벌여져 모든 시공단위들에서 높이 세운 공사목표를 일제대로 넘어이 수행하고있다.

지난 기간 나라의 중요대상건설에서 위훈떨친 조선인민내무군공사장에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는 열정을 본받아 많은 량의 공사를 다그쳐 끝내며 이어 다음공정수행에서 계속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양각대의 건설자양성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도 파총관을 비롯한 여러 건설대상들의 골조공사에 참여하여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는 열정을 본받아 많은 량의 공사를 다그쳐 끝내며 이어 다음공정수행에서 계속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이곳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펼치는 오늘에 보람찬 건설투쟁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할 비상한 각오를 안고 혼합물수송차와 각종 중기계들의 리용률을 부쩍 높이며 서우사와 맹진세관, 산업을 비롯한 건축물들의 골조공사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건설자들로 국가화현 기술자들과의 긴밀한 협조연이 한양상은 걸려야 한다던 파총관의 지

앙성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도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이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인민군대의 혁명적인정신을 본받아 많은 량의 휘물자재와 골재를 자체로 마련하면서 원수이판을 비롯한 규모가 큰 동물사들의 골조공사를 손색없이 끝내고 1단계 사회주의경쟁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자랑을 떨쳤다. 5, 1, 1, 1, 8 직장의 일군들과 전투원들은 기발하고 혁신적인 창의고안들을 려이 받아들이며 대성골조공사를 다그쳐 끝내며 이어 다음공정수행에서 계속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양각대의 건설자양성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도 파총관을 비롯한 여러 건설대상들의 골조공사에 참여하여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는 열정을 본받아 많은 량의 공사를 다그쳐 끝내며 이어 다음공정수행에서 계속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이곳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펼치는 오늘에 보람찬 건설투쟁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할 비상한 각오를 안고 혼합물수송차와 각종 중기계들의 리용률을 부쩍 높이며 서우사와 맹진세관, 산업을 비롯한 건축물들의 골조공사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건설자들로 국가화현 기술자들과의 긴밀한 협조연이 한양상은 걸려야 한다던 파총관의 지

부트라스조립공사도 보름동안에 해제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모든 시공단위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은 건설에서 대성별특색에 맞게 다양한 형식의 집중되어 장마철에도 지장없이 공사의 승진을 더욱 높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고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건물내부 및 지붕공사 립체적으로 벌여지는 조건에 맞게 대성별로 본 고기를 창조하고 일화하기 위한 작전을 펴고 모든 시공단위들이 공사계획을 일별, 주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고있다.

조선속도창조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려는 여러 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혁명적열의에 떠받들려 중앙동물원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몰라보게 변모되고있다.

본사기자 지원철

경쟁열풍속에 1만 9 400여동의 남새온실 건설

전국 각지에서

은 나라에 남새온실건설 열풍이 세차게 일어난지는 속에 눈부신 성과가 이룩되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안주시 송학협동농장 남새온실을 현지 지도하신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620여경의 면적에 1만 9 400여동의 남새온실이 새로 건설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축산을 적극 발전시키고 온실남새와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하여 더 많은 고기와 남새, 버섯이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6월 안주시 송학협동농장 남새온실을 돌아보시면서 남새온실을 곳곳에 건설하여 그 윤택을 깨뜨리는것은 남새생산에서 계획성을 극복하고 인민들에게 사할 신선한 남새를 공급하는데서 중요한 의의

를 가진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중앙에서 도, 시, 군들에 건설할 표준화된 온실설계를 내려보내주며 도, 시, 군들사이의 경쟁을 조직하고 총화대책도 따라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해당 부문의 일군들은 표준화된 남새온실계획도, 시, 군들에 보내주어 온실을 지방의 기후후토에 맞게 건설할수 있게 하였다.

동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농공맹조직들에서는 남새온실을 잘 건설하고 편리한 영을 짜고들기 위한 도, 시, 군들사이의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조직전개하였다.

평양시, 함경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가 경쟁의 앞장에

서 내달리었다. 평양시에서는 일군들이 대중속에 들어가 남새온실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에 대하여 해설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이하였다. 뿐만아니라 한동을 건설해도 표준설계의 요구대로 잘 건설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시에서는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에 많은 공공식막막 온실을 일떠세운것을 비롯하여 1 100여동의 남새온실을 번듯하게 일떠세웠다.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황해남도에서는 당조직들의 지도 밑에 남새온실건설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공사기일을 최대한 앞당겼다. 그리하여 함경

남도에서는 2 800여동, 평안북도에서는 2 900여동, 황해남도에서는 2 600여동의 남새온실을 훌륭히 건설하였다. 그리고 새로 건설된 온실들에 집종은 부시트를 두루히 깔고 여러가지 다수확 품종의 남새들을 심었다. 근로자들이 온실내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한 결과 도마다 수천개의 온실남새를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는 자랑스러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시, 군, 구역들에 1정보규모의 남새온실이 훌륭히 건설되어 온을 내기 시작하였다. 천리마구역, 사동구역, 락랑구역을 비롯한 많은 시, 군, 구역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건설을 본때있게 내밀어 1정보

의 남새온실을 품들여 꾸려놓았다. 정주시, 회천시, 함주군, 회령시의 일군들과 건설자들도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킬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비배관리를 힘써 넣어 수확, 부수, 시금치를 비롯한 수신택의 온실남새를 생산하여 전쟁로병, 영애군인, 후방가족들과 애육원, 유아원원아들에게 보내주었다.

지금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최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제시하신 과업을 높이 받들고 남새온실을 더 많이 건설하며 이미 건설한 온실들이 큰 온을 내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장은영



논물관리에 힘을 넣으면서 비배관리를 잘해나가고있다. - 온천군 송학협동농장에서 - 본사기자 김홍준 역음

전당, 전국, 전민이 가물과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군민이 힘을 합쳐 농작물을 적극 보호

하루에 190여정보의 물주기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가물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황해남도과 평안북도안의 협동봉에 달려나간 인민군인들과 일군들, 근로자들이 힘을 합쳐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황해남도에서

황해남도에서 가물과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달려나온 인민군군인들과 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군민이 힘을 합쳐 가물피해로부터 농작물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섰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 시, 군련합지휘부를 조직하고 모든 령령을 가물과의 투쟁에 총동원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전두적으로 짜고들고있다.

모든 령령이 총동원된 가운데 협동봉들이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으로 옮겨나가고있다.

그 앞장에 인민군군인들이 서있다. 군인들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불같은 의지안고 협동봉들에 달려나와 가물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농업근로자들이 물원천을 모조리 찾아 농사에 적극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특히 벽성군에서는 90여개의 저수지를 수리복구하고 물을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미리 세운데 기초하여 한포기의 곡식도 가물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령령을 가물과의 투쟁으로 적극 불리시키고있다.

한편 이 군들에서는 양수기와 강우기, 전동기, 변압기들의 정상 가동상태를 다시금 료해하고 대책을 제때에 따라세우고있다.

은천, 강령, 응진, 재령, 태탄 군을 비롯한 다른 군들에서도

평안북도에서

가물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전두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신의주시를 비롯하여 도의 모든 시, 군들에서 인민군군인들과 인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가물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모든 시, 군들에서 령령을 총동원하여 가물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달려나온 인민군군인들은 협동봉들에서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모든 농장들은 이미 건설된 우물과 굴포, 쟁쟁들을 빠짐없이 보수, 리용하도록 하는 한편 농장은 물론 공장, 기업소들의 각종 양수설비들도 포전에 이설하고 논밭에 물을 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또한 기본물길들과 저수지, 저수지들의 물을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강대책을 세우고있으며 논물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응당한 힘을 넣고있다.

특파기자 리 승철

이른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물주기전투를 벌리면서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해주고있다.

신의주시가 가물과의 전투로 옮겨나가고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토성협동농장을 비롯한 모든 협동농장에서는 군민이 힘을 합쳐 가물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매일 많은 면적의 논과 밭을 적시고있다.

염주군에서는 군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 일군들과 근로자들, 녀맹원들, 가두인민반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매일 많은 면적의 밭에서 물주기전투를 힘있게 벌리며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다시협동농장에 달려나온 인민군군인들은 농장원들을 도와 물주기전투를 적극 벌려 농작물들이 가물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있다.

이들은 현지를 밟으며 물원천을 적극 찾아내는것과 함께 양수설비들과 물운반수단을 최대한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구성시, 응진, 철산, 통천군을 비롯한 도의 다른 시, 군들에서도 군민이 힘을 합쳐 가물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송 창윤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었다.

은 시가 가물피해막이전투로 부글부글 옮겨나가고있다. 일군들부터 아침일찌기 농장포전들에 달려나와 물주기를 하며 이신착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고있다.

방충선전차와 포전방충기계를 비롯한 선전선동수단들이 위력을 떨치며 사상건의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고있는 속에 가물피해막이전투장곳곳에서 대중의 열의를 북돋아주는 혁신의 새 소식들이 연이어 전해지고있다.

일군들과 근로자모두가 올해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자면 한포기의 곡식도 가물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 한다는것을 명심하고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물주기를 하고있다.

농장들에서 온갖 예비와 가농성을 동원리용하여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포전들을 적시하기 위한 투쟁이 전두적으로 벌어지고있다.

농장일군들은 물원천이 있는 곳들에 이도양수설비들을 동적으로 설치하여 논밭에 물을

빨리 대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세기있게 하고있다.

이와 함께 트랙터와 담수지를 비롯한 운반수단을 합리적으로 동원리용하여 가물을 탈수하는 포전부터 적시기 위한 대책을 세우면서 전두적으로 지휘를 책임지고있다.

농장원들은 예써 심어가온 농작물들이 가물을 이겨내고 알찬 열매를 맺게 하여야 나라살육을 가득 채울수 있다고 하면서 작업반, 분조, 농장원별로 승벽대기를 하며 포기마다 정성다해 물주기를 하고있다.

농장포전에 달려나온 기관,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 가두인민반원들도 농장원들과 농사를 함께 책임졌다는 주인공다운 자각을 안고 하루를 열흘맞잡이로 여기며 농작물들을 푸르싱싱하게 자라시키기 위한 일에 힘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려는 불타는 열의를 안고 매일 수만명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떨쳐나 농장포전들에 물주기를 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성철

물원천을 모조리 탐구동원하여

이들 동안에 와락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물피해를 극복하는 데서 가장 중요함은 관계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

며칠전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포전들을 돌아보던 문덕군 상북협동농장 일군들은 생각이 깊었다. 양수설비들에 대한 수리점검을 철저히 하여 많은 면적의 논에 물을 대고 있었지만 일부 포전들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있었기때문이었다.

이 포전들은 관수체계를 세우기가 힘들므로 하여 가물피해를 입수수 있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포전

들에서는 웅근소출을 거들수 없다고 여기고있었다. 하지만 일군들의 생각은 달랐다.

한때기의 부침땅도 가물피해를 입게 해서는 안된다. 논두렁에서는 적시없는 험의회가 열렸다. 일군들은 열던 논쟁을 벌리었다. 이렇게 양수기를 설치하지는 의견, 물길을 짜는 의견 등 많은 안들이 나왔다. 하지만 이 모든것은 실정에 맞지 않았다.

많은 자재와 시일이 요구되기때문이었다. 모두가 현실조건에 가장 적합한 방도를 찾기 위해 애썼다. 이때 한 일군이 물이 나올수 있는 곳들에 굴포와 물주머니를 만들면 가물피해를 막을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안을 내놓았다.

일씩 생각해도 가능성이 보였다. 굴포를 파고 물주머니를 만드는 일은 농장의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할수 있었고 더구나 짧은 기간에 끝낼수 있기때문에 가물피해를 막을수 있었다.

일군들은 즉시 현지에 내려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타산해보았다. 제5작업반지역에는 여러곳에 굴포를 파고 제2작업반지역에는 물주머니를 만들면 적지 않은 문제가 해결될수 있었다.

이 일군들은 신심에 넘쳐 공사를 작전하였다. 또다시 현지를 구체적으로 밟아본 일군들은 작업반별로 일을 맡겨주고 고도로 창조적극성을 발

양시키며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렸다. 공사장에서는 불타는 전두로 벌어졌다.

일군들은 들끓는 분위기에 맞게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결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 공사기일을 앞당기게 하였다. 농장원들은 농작물을 가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성실한 맘을 바쳐갔다. 그들은 뜻깊은 올해에 농사를 잘 지어 거두어 풍년가을을 안아올 열의드높이 경쟁적으로 전투를 벌렸다.

성공의 담보를 찾아내고 결승을 향해 조직동원한 일군들은 출했다. 공사장을 이룰 동안에 끝내는 혁신이 창조되었다.

본사기자 윤 용호

드넓은 강냉이밭이 폭젓도록

드넓은 황주군들에서 가물막이전투로 부글부글 옮겨나가고 있다.

황주군의 일군들이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전두적사업들을 빈틈없이 벌리면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군민들이 힘있게 떨쳐나서고 있다. 군의 농업부문 일군들이 현지에 내려가 가물피해를 받고있는 논과 강냉이밭면적을 정확히 료해하고 로력과 기계수단들을 총동원하기 위한 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모 농장들에서 우물과 굴포, 굴포를 적극 리용하고 물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관계망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지 금 군안의 모든 농장들에서는

나와 올해농사를 잘 지어 기어이 우리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해결하려는 당의 높은 뜻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헌신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군민들이 힘있게 떨쳐나서고 있다. 군의 농업부문 일군들이 현지에 내려가 가물피해를 받고있는 논과 강냉이밭면적을 정확히 료해하고 로력과 기계수단들을 총동원하기 위한 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모 농장들에서 우물과 굴포, 굴포를 적극 리용하고 물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관계망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지 금 군안의 모든 농장들에서는

나와 올해농사를 잘 지어 기어이 우리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해결하려는 당의 높은 뜻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헌신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군민들이 힘있게 떨쳐나서고 있다. 군의 농업부문 일군들이 현지에 내려가 가물피해를 받고있는 논과 강냉이밭면적을 정확히 료해하고 로력과 기계수단들을 총동원하기 위한 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모 농장들에서 우물과 굴포, 굴포를 적극 리용하고 물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관계망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지 금 군안의 모든 농장들에서는

나와 올해농사를 잘 지어 기어이 우리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해결하려는 당의 높은 뜻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헌신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군민들이 힘있게 떨쳐나서고 있다. 군의 농업부문 일군들이 현지에 내려가 가물피해를 받고있는 논과 강냉이밭면적을 정확히 료해하고 로력과 기계수단들을 총동원하기 위한 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모 농장들에서 우물과 굴포, 굴포를 적극 리용하고 물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관계망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지 금 군안의 모든 농장들에서는

나와 올해농사를 잘 지어 기어이 우리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해결하려는 당의 높은 뜻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헌신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군민들이 힘있게 떨쳐나서고 있다. 군의 농업부문 일군들이 현지에 내려가 가물피해를 받고있는 논과 강냉이밭면적을 정확히 료해하고 로력과 기계수단들을 총동원하기 위한 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모 농장들에서 우물과 굴포, 굴포를 적극 리용하고 물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관계망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지 금 군안의 모든 농장들에서는

나와 올해농사를 잘 지어 기어이 우리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해결하려는 당의 높은 뜻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헌신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군민들이 힘있게 떨쳐나서고 있다. 군의 농업부문 일군들이 현지에 내려가 가물피해를 받고있는 논과 강냉이밭면적을 정확히 료해하고 로력과 기계수단들을 총동원하기 위한 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모 농장들에서 우물과 굴포, 굴포를 적극 리용하고 물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관계망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지 금 군안의 모든 농장들에서는

찾을수록 나오는 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여있는 천내군 료운협동농장에서 이런 말을 들을수 있다.

“찾을수록 나오는 것이 물이다. 그렇만도 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하겠습디다.》

이 농장의 논은 양수동력으로 물을 대게 되어있다. 하지만 올해에는 레년에 보기 드문 가물로 하여 일부 포전들에 물을 제때에 대주기 어려운 정황

이 조성되었다. 농장에서는 가물피해를 받을수 있는 포전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양수기들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이는것과 함께 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힘을 넣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물원천이 부족하였다. 관리위원장은 그 방도를 찾기 위해 농장의 여러곳을 돌아보기도 하고 농장에서 오래동안 일하다가 일손을 놓은 로인들과도 무릎을 마주하였다. 그때 로인이 어느 한 곳을 가리키며 수십년전에도 가물이 들었을때 그곳을 파보니 물이 나왔다는것을 알려주었다.

관리위원장은 즉시 일군들과 함께 현지에 나가 그 지점을 확정하고 땅을 파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몇m의 깊이에서 물이 나왔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물주머니를 만들기 위한 전투를 벌리어나갔다. 군당위원회일군들이 이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도와나섰다.

그러하여 짧은 기간에 물주머니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농장에서는 여기에 양수기를 설치하고 포전들에 물을 대주었다.

일군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리

는 작은 시내물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시내물을 헛되어 흘러보내지 않고 리용하면 굴포까지 1천여m구간의 도랑을 파야 하였다.

농장에서는 도랑파기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땅속으로 물이 스며드는것을 막기 위해 물도랑에 비닐막을 깔아주는 등 필요한대책들도 세웠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가물피해를 막아 올해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땀흘린 보람이 있어 포전마다에 물을 충분히 대줄수 있게 되었다.

김 강 철

나와 올해농사를 잘 지어 기어이 우리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해결하려는 당의 높은 뜻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헌신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군민들이 힘있게 떨쳐나서고 있다. 군의 농업부문 일군들이 현지에 내려가 가물피해를 받고있는 논과 강냉이밭면적을 정확히 료해하고 로력과 기계수단들을 총동원하기 위한 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모 농장들에서 우물과 굴포, 굴포를 적극 리용하고 물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관계망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지 금 군안의 모든 농장들에서는

나와 올해농사를 잘 지어 기어이 우리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해결하려는 당의 높은 뜻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헌신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군민들이 힘있게 떨쳐나서고 있다. 군의 농업부문 일군들이 현지에 내려가 가물피해를 받고있는 논과 강냉이밭면적을 정확히 료해하고 로력과 기계수단들을 총동원하기 위한 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모 농장들에서 우물과 굴포, 굴포를 적극 리용하고 물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관계망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지 금 군안의 모든 농장들에서는

나와 올해농사를 잘 지어 기어이 우리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해결하려는 당의 높은 뜻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헌신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군민들이 힘있게 떨쳐나서고 있다. 군의 농업부문 일군들이 현지에 내려가 가물피해를 받고있는 논과 강냉이밭면적을 정확히 료해하고 로력과 기계수단들을 총동원하기 위한 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모 농장들에서 우물과 굴포, 굴포를 적극 리용하고 물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관계망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지 금 군안의 모든 농장들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보고자
 필리핀 공화국 대통령 후안 마누엘 산토스각하

나는 얼마전 귀국에서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 당신이 필리핀공화국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냈니이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호상리익에 맞게 계속 촉개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번영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평 양 주체103(2014)년 6월 17일

직맹 일군들과 직맹원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답사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을 맞으며 직맹일군들과 직맹원들이 11일부터 18일까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를 진행하였다.

답사자들은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과 보천보혁명전적지, 삼지연못가에 놓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배두산3대장군의 영상을 형상화한 백두산일영의 모자이크벽화에 꽃바구니와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갈 신념의 맹세를 안고 행군길을 다그쳐 력사의 땅 보천보에 들어선 그들

은 보천보혁명전적지에 대한 해설을 들은 다음 보천보전투지휘처, 경찰관주재소, 연서부소, 우편국 등을 돌아보면서 항일의 전설적영웅의 비범한 군사생활과 지략을 체득하였다.

보천보를 떠나 삼지연에 도착한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호모시대의 불굴의 투쟁모습, 열렬한 조국애를 형상한 조각공상들이 있는 삼지연대기념비를 돌아보았다.

삼지연학생소년궁전, 배개봉국수집을 비롯하여 삼지연읍지구에 대한 참관은 그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답사자들은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올라 현지의 장쾌한 전경과 밀림을

관망하시어 항일대전의 총포성을 들으며 성장하신데 대한 존경을 들으면서 백두산일영고향집에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청봉과 건창, 배개봉수영지들의 구호문헌들을 보며 그들은 항일혁명선열들의 백옥같은 충정과 조국애를 가슴마다에 새기었다.

답사행군기간 그들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력사에 대한 문답식학습견, 항일빨치산참가자들의 희생기발표모임, 혁명가요대합창공연, 체육경기, 오락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정치문화사업도 활발히 진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나와 올해농사를 잘 지어 기어이 우리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해결하려는 당의 높은 뜻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헌신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군민들이 힘있게 떨쳐나서고 있다. 군의 농업부문 일군들이 현지에 내려가 가물피해를 받고있는 논과 강냉이밭면적을 정확히 료해하고 로력과 기계수단들을 총동원하기 위한 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모 농장들에서 우물과 굴포, 굴포를 적극 리용하고 물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관계망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지 금 군안의 모든 농장들에서는

나와 올해농사를 잘 지어 기어이 우리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해결하려는 당의 높은 뜻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헌신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군민들이 힘있게 떨쳐나서고 있다. 군의 농업부문 일군들이 현지에 내려가 가물피해를 받고있는 논과 강냉이밭면적을 정확히 료해하고 로력과 기계수단들을 총동원하기 위한 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모 농장들에서 우물과 굴포, 굴포를 적극 리용하고 물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관계망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지 금 군안의 모든 농장들에서는

나와 올해농사를 잘 지어 기어이 우리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해결하려는 당의 높은 뜻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헌신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군민들이 힘있게 떨쳐나서고 있다. 군의 농업부문 일군들이 현지에 내려가 가물피해를 받고있는 논과 강냉이밭면적을 정확히 료해하고 로력과 기계수단들을 총동원하기 위한 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모 농장들에서 우물과 굴포, 굴포를 적극 리용하고 물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관계망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지 금 군안의 모든 농장들에서는

나와 올해농사를 잘 지어 기어이 우리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해결하려는 당의 높은 뜻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헌신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군민들이 힘있게 떨쳐나서고 있다. 군의 농업부문 일군들이 현지에 내려가 가물피해를 받고있는 논과 강냉이밭면적을 정확히 료해하고 로력과 기계수단들을 총동원하기 위한 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모 농장들에서 우물과 굴포, 굴포를 적극 리용하고 물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관계망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지 금 군안의 모든 농장들에서는

나와 올해농사를 잘 지어 기어이 우리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해결하려는 당의 높은 뜻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헌신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군민들이 힘있게 떨쳐나서고 있다. 군의 농업부문 일군들이 현지에 내려가 가물피해를 받고있는 논과 강냉이밭면적을 정확히 료해하고 로력과 기계수단들을 총동원하기 위한 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모 농장들에서 우물과 굴포, 굴포를 적극 리용하고 물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관계망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지 금 군안의 모든 농장들에서는

나와 올해농사를 잘 지어 기어이 우리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해결하려는 당의 높은 뜻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헌신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리 정 수



가물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려 좋은 농사작황을 마련해가고 있다. -송림시 당산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어머니 당을 그리며 그 생애를 회상하며 그 애국정신을 계승하며 그 뜻을 이어나가자

위대한 당의 평도파라 강성혁명의 눈부신 미래를 향해 비약하는 내 조국강산에 천만심장이 우러러 떠치는 로동당찬가가 울려 퍼지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 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년이 되는 뜻깊은 시기에 이 세상 가장 존엄하고 위대한 당, 한없이 고마운 우리 당을 구가한 가요 《내 심장의 목소리》가 훌륭히 창작형상된 것은 선군혁명음악사에서 참으로 큰 의의를 가진다.

당과 혁명, 조국과 민족의 앞길에 창상한 미래가 펼쳐진 역사적 전환의 해 주제53(1964)년에 우리 당을 어머니로 노래한 첫 기념비적송가 《어머니당이어》가 나온 때부터 장장 반세기 당에 대한 찬가들이 수없이 창작되었다. 가늘고 세기를 이어 천만심장을 로동당의 붉은 피로 높여주고 노래들은 인민의 모든 윤행과 미소를 다 담아 안아주는 위대한 어머니께 드리는 영원무궁한 영광이며 애제도 오늘날도 래일도 오직 당중앙을 따라 충정의 한길에 끝까지 걸어나가려는 전인민적사상감정의 거센 찬송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수령의 사명제와 평도파라 확고히 선포하여 주셨고, 인민대중을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강철같은 규율과 전투력을 지닌 불멸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셨던 것은 우리 당역사에 빛나는 이룩성적 중 가장 특출한 업적입니다.》

은 나 나라 김일성상징관작 품 연구 《오늘을 추억하러》의 주인공형상이 누구인지 알고있다.

고난의 행군시기를 반영한 시대적명작의 주인공형인 평정시인인위원회 위원장 로 혁명용 안명동무는 자기 자신양군행정 및 경제지도자(당시) 위원장으로서 일할 때 스승과 같이 절음들을 가르쳐 주고 밀거름이 되어 힘껏 때릴준 김중호군당책임비서야말로 참된 당인민의 전영이요 고 말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 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던 시기 김중호동무는 장군님을 물가하이 모시고 생활하면서 그의 슬하에서 당사업방법을 직접 배운 일꾼이다.

생전에 그는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맺은 력사의 첫새벽을 잊지 못해하였다.

갑회도 새로운 50년전의 2월 20일 새벽,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력사의 첫발을 집무실에서 꼬박 밟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원한 새벽공기 흘러넘치는 정원으로 나오실 때 그와이 한 사무실에서 새날을 맞은 김중호동무도 따라다녔다.

새벽이슬에 함복 맺은 당중앙 위원회구내길을 걸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새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공기를 마시니 피로가 다 풀린다. 그리고는 정경은 미소를 보내시었다.

이윽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말씀하시었다. 《새벽공기는 혁명가들이 남다른 마시게 됩니다.》

대 오 의 기 수

이런 불같은 마음을 안고 그는 전투장에 달려나온 첫날부터 어렵고 힘든 일에 남다른 열정을 더하며 진정의 불과구를 열어나갔다. 특히 그는 당의 뜻을 신장에 새기고 현장정치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여 돌격대원들의 앙양된 열기와 높은 전투실적을 이룩하도록 하였다. 또한 어려운 일감이 제기되면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아내어 소대가 맡은 전투과제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한몸 단단히 하였다. 이런 그의 남다른 일본색을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돌격대원들의 거울로 되었고.

그는 작업의 속도와 질보장에서 한치의 양보를 모른다. 하지만 군사부서직 혁명적정신성을 체제화한 그는 대의 전투력강화와 돌격대원들의 후방사업보장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뿐만 아니라 뜨거운 인정을 지니고 돌격대원들의 생활을 친필의 심정으로 돌보아주었다.

집단과 동지들을 사랑하는 그의 뜨거운 진정, 남다른 이신적으로 하여 소대는 한가지, 한식술이 되었고 전투력이 강한 집단으로 자라났다. 본사기자 김성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을 만났다

무함마드 지하드 알 라함 수리아아랍공화국 인민회의 의장이 19일 인민회의청사에서 오레 방문한 리수용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을 만나 친선회담의 분위기를 대화로 하였다. 석상에서 의장은 조선인민의 애국열정과 애국정신에 대해 김정은원수님께 수리아인민회의와 자신의 의 뜻을 전하며 드림절을 대표단장에게 부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수리아 출발

리수용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이 19일 수리아아랍공화국 방문을 마치고 출발하는 수리아외무 및 이주민정

로씨야연방 최고검찰소대표단 귀국

유리 클라진 부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연방 최고검

위대한 어머니께 드리는 심장의 노래

《어머니당이어》로부터 《내 심장의 목소리》까지 반세기에 울려 퍼진 조선로동당찬가들

주제53(1964)년 6월 19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것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특기할 전환의 계기를 열어나온 력사적사건이었다.

대를 이어 절세위인을 당의 진두에 높이 모신 끝없는 감격과 환희가 강산에 차넘치던 뜻깊은 이 해에 청소환 사회주의국가와 인민을 특출한 공헌을 한 가요 《어머니당이어》가 창작되었다.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당을 어머니로 노래한 찬가는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같이, 땅우에 흐르는 강물과 같이 한없이 귀중하고 고마운 우리 당에 대한 가장 값높은 칭송이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평도야래 창건된지 20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청소한 사회주의국가와 인민을 이끌어 우리 나라를 세계적락 후와 빈궁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인민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조선로동당! 자기의 국적인 운명체통을 통하여 우리 인민이 간직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 사랑의 감정을 훌륭히 음악화하고 수백년의 세계혁명사에서 최고봉을 이루는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유대의 조상관계를 하나의 대명사에 가장 승명하고 완벽하게 정식화한 바로 여기가 가요 《어머니당이어》의 기념비적의의가 있다.

어머니당이라는 력사적인 정의와 더불어 장장 반세기 조선로동당에 대한 찬가들이 수없이 창작되어 온 것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특기할 전환의 계기를 열어나온 력사적사건이었다. 대를 이어 절세위인을 당의 진두에 높이 모신 끝없는 감격과 환희가 강산에 차넘치던 뜻깊은 이 해에 청소환 사회주의국가와 인민을 특출한 공헌을 한 가요 《어머니당이어》가 창작되었다.

어머니당이라는 력사적인 정의

《당은 어머니 나는 그 아들, 《내 운명 지주 어머니당이어》 등 노래들이 수십편이나 창작된 것은 어머니의 마음속에 뿌려내린 우리 당의 참모습이 바로 어머니의 모습임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편한편의 명목들은 한생명을 위하여 하늘길 배길을 펼쳐주고 곡절 많은 운명에도 재생의 빛을 안겨주며 남모르는 생각도, 작은 소원까지도 다스리게 해버려주는 친어머니사랑에 대한 인민의 심장의 노래였다.

하기에 외진 섬소초를 지켜서 인민군정사도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의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고 수천척지하막장과 간석지건설장도 달려가는 청춘들도 《어머니 우리 당이 바라다면》, 《가교이 가는 길》을 불렀으며 애어린 소녀들은 《내 마음의 품》이라고 목청껏 노래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당의 수뇌부에 높이 모신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와 같이 결집이 승화된 전체 인민의 사상감정을 반영한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 《영원히 한길에 가리라》, 《어린의 신념은 하나》 같은 찬송의 노래들이 편이 창작되어 천만의 심금을 울려다.

세기의 언덕 넘어 주체혁명의 시대에 선군혁명의 강위적인 항도적격향으로 장성강화된 우리 당에 대한 노래는 심원한 사상적의미를 안고 더 높이 울려다.

당창건 65년과 조선로동당 제3차 대표사회가 열린 뜻깊은 해에 수심년전 조국과 혁명, 인민을 승리케 인도한 위대한 우리 당에 드리는 감사의 노래, 맹세의 노래가 훌륭히 창작완성되어 10월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위대한 전환의 경적광장을 환희롭게 장식하였다.

특히 가요 《당은 장군님의 품》은 지난 시기에 창작된 《당은 우리의 선봉대》, 《로동당은 우리의 향도자》, 《당의 품은 우리 사는 곳》, 《당은 어머니모습》 등의 찬가들이 담고있는 모든 사상감정을 최상의 경지로 승화시키고 격조 높게 더듬어 오려다.

《당은 어머니모습》은 우리 당의 정화를 이루었다. 가요 《영광을 드려라 위대한 우리 당》, 《당을 노래하노라》, 《당을 따라 청춘들이 앞으로》도 우리 당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위대한 전환의 경적광장을 환희롭게 장식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당의 수뇌부에 높이 모신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와 같이 결집이 승화된 전체 인민의 사상감정을 반영한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 《영원히 한길에 가리라》, 《어린의 신념은 하나》 같은 찬송의 노래들이 편이 창작되어 천만의 심금을 울려다.

세기의 언덕 넘어 주체혁명의 시대에 선군혁명의 강위적인 항도적격향으로 장성강화된 우리 당에 대한 노래는 심원한 사상적의미를 안고 더 높이 울려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대회에 참가하였던 평범한 당세포비서들이 울린 소박한 편지들을 가요 《어머니의 목소리》의 가사를 친필하여 주시며 어머니당의 사랑과 믿음의 목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지게 하라는 귀중한 당부를 해주셨다.

정오로 인민을 안아 보살피는 위대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구별마다 애드급게 울려오는 가요 《어머니의 목소리》를 부르며 온 나라 인민은 대를 이어 은혜로운 사랑의 품에 안겨사는 무한한 행복과 영광으로 가슴들먹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실한 지도 아래 당창건 67년을 경축하는 조국땅에 1980년에 창작된 가요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이 훌륭히 재형상되어 울려 퍼지면서 목숨을 버릴지언정 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절대로 놓지 않고 주체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로 억세게 나아가려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정병들, 인민들의 신념을 만방에 파시하였다.

풍만한 서정적 생활적인 시어들로 당과 인민대중사이에서 피출처 맺어진 정을 노래한 가요 《그대는 어머니》는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를 본성으로 하는 우리 당에 대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찬가이다. 지난해에는 모든 승리와 영광의 표에 대한 열렬한 찬가 《당기어 영원히 그대와 함께》가 새로 창작

되어 주체의 위대한 당기를 더 높이 수켜들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평도호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충정을 힘있게 구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다들 이어 위대한 평도자를 모신 어머니의 그 이름을 세세 단단 떨쳐가는 우리 당, 이 나라의 수천만 아들딸들이 주저없이 스텝없이 어머니라 부르며 달려가 안기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소박하고 진정된 목소리를 꾸밈없이 엮은 가요는 후세에 길이 빛날 주체음악의 기념비와 같은 걸작이다.

피도 슬겔도 나누어주고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을 주는 우리 당의 크나큰 품, 뜨거운 사랑을 천만민세월이 흘러도 어머니로밖에는 달리 불렀노는 노래 하듯도 없다는 것이 《어머니당이어》로부터 《내 심장의 목소리》까지 반세기에 울려 퍼진 조선로동당찬가들이 증시하는 력사의 진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받들어 주체혁명에 최후승리를 향한 영웅적전투에서 위대한 어머니께 드리는 인민의 심장의 노래는 이 세상 끝까지, 세월의 끝까지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뜻깊은 첫새벽의 당부대로

이처럼 뜻깊게 말씀하시며 당일꾼들이 누구보다도 새벽이슬도 먼저 밟고 새벽공기도 먼저 마시며 언제 어디서나 충정의 한길로만 걸어가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당부대를 김중호동무는 한생토록 신장에 새기고 살았다.

군당책임비서인 김중호동무가 사람을 정확히 보고 핵심을 잘 꿰뚫어보아라 할수있다. 그의 원칙적이고 방범이었던 당사업에 의하여 고향을 향하는 로동자, 농민들이 신양군의 주인으로 자라났으며 이름없는 름산조사의 말로사 산골중학교 교원이었던 안명동무도 한계 군의 경제사업을 책임진 일꾼으로, 인민의 참된 복부자로 성장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침마다 인민을 위한 북방울을 울려야 한다고 하시던 김중호동무는 어김없이 북방울을 울리도록 하였다. 하지만 산촌에서 도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히 먹여야 한다고 하시던 그 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앞장에서 뛰어나다.

그리고도 평가를 받는 자리에는 늘 행정일꾼들을 내세웠다. 언제나 특전을 경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평민적모습을 대하는 감동은 받은 그는 한생 그의 가르치심대로 무한히 고지식하고 청렴하게 살았으며 자식들에게 고귀한 정신적유산을 남겨주었다.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속에서 당사업을 배웠기에 김중호동무는 어떤 직무에서나 충정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품을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받들어오시는 충직한 인간들로 기웠으며 안명용동무와 같은 시대가 바라는 일꾼들로 태어나게 하였다.

안명용동무의 뒤에 그의 성장의 밑거름이 된 참된 당일꾼이 있었으니 이 나라의 수많은 시대의 전형들의 위에는 그들을 키우고 내세워준 미더운 당일꾼들이 있다. 바로 그들을 어머니장군님께서 키우시었다.

정평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한생을 일꾼들을 혁명의 지휘봉으로 돌리며 키우시고 시대의 아름다운 인간전형들을 역세로 지켜우신 절세위인의 한형생이다. 본사기자 허명숙

태양의 빛발, 보담의 열정넘치는 평양체육관

어머니수령님의 사상과 평도를 받들어 부강조국건설을 현명하게 이끌어온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평도업적을 평양체육관에 또 드급게 깃들여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의 평도업에 혁명이 전진하며 수령의 품속에서 인민의 참된 삶이 꽃피나.》

풍지수려한 보담강변에 자리잡고있는 평양체육관은 주제62(1973)년 4월에 준공되었다. 나라의 체육발전과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향상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태양의 빛발아래 사회주의 조선의 또 하나의 재부

어머니수령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체육관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몸소 러진것을 잡아주셨으며 그 실현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어머니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정책적인 평도업에 의하여 체육관은 짧은 기간에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체육시설로 웅장화하여 일떠세 되었다.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로동당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한 일떠세 체육관의 이름을 《평양체육관》이라고 지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태양의 빛발아래 사회주의 조선의 또 하나의 재부

어머니수령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체육관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몸소 러진것을 잡아주셨으며 그 실현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어머니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정책적인 평도업에 의하여 체육관은 짧은 기간에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체육시설로 웅장화하여 일떠세 되었다.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로동당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한 일떠세 체육관의 이름을 《평양체육관》이라고 지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로동당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한 일떠세 체육관의 이름을 《평양체육관》이라고 지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로동당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한 일떠세 체육관의 이름을 《평양체육관》이라고 지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로동당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한 일떠세 체육관의 이름을 《평양체육관》이라고 지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우리 시대 참된 인간전형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우자

이천땅의 붉은 선동원-박연화동무의 소행에 대한 각계의 반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야 하며...》

이천군 신당산전선전투중동 주제 3작업단 2분조 선동원 박연화동무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아름다운 소행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끌어들여 감동시키고있다. 고난의 시기 스스로 부모없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고 수심년을 선동원으로, 실봉군으로 참되게 살아온 주인공처럼 삶의 순간순간을 빛내어갈 결의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

박연화동무가 분발하고있다. 모두가 박연화동무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랑심의 거울로 삼고 말은 일에서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갈 결의를 가다듬고있다. 회한과 이치는 비록 멀리에 떨어져있지만 우리 돌격대원들은 언제나 박연화동무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가면서 인민이 살고 조국이 사랑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기 위해 맡은 일을 지혜와 열정 다 바쳐나갈것이다.

중구역인민위원회 박정란은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당의 품속에서 태어난 훌륭한 인간전형 박연화동무에 대한 각계를 잊으면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참다운 행복은 정병 어디에 있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금 깊이 하였다.

수심년 아이들이 어머니이며 협동물을 가꾸는 농장원이며 대오의 이수인 선동원 박연화동무, 그의 어깨에 실린 짐의 무게를

어머니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더욱 꽃피워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끊임없는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평양체육관에 불멸의 자욱을 새기기도 하시고 또 기가 있을 때마다 온 정이 담긴 가르치심도 주시며 체육관이 어머니수령님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라의 체육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꽃피도록 노력적 기여할수 있도록 그 관려 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었다.

뿐만아니라 수많은 체육문화회제들도 보내주시었다. 평양체육관이 지난 수십년 동안 많은 국내국제경기들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나라의 체육발전을 추동하며 인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는 데 적극 기여하시어온것은 이렇듯 어머니수령님의 높은 뜻을 꽃피우시기 위해 우리 장군님께서 아낌없이 바쳐오신 위대한 헌신과 승애한 사랑의 세기가 뜨겁게 솟아내었다.

하기에 평양체육관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어제도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매일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평도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갈 불같은 일념이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만드느라 펼쳐지고야말 사회주의명목 을 훌륭히 개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몸소 현지에

특히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체육관을 훌륭히 개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몸소 현지에

특히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체육관을 훌륭히 개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몸소 현지에

어머니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더욱 꽃피워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끊임없는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평양체육관에 불멸의 자욱을 새기기도 하시고 또 기가 있을 때마다 온 정이 담긴 가르치심도 주시며 체육관이 어머니수령님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라의 체육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꽃피도록 노력적 기여할수 있도록 그 관려 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었다.

뿐만아니라 수많은 체육문화회제들도 보내주시었다. 평양체육관이 지난 수십년 동안 많은 국내국제경기들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나라의 체육발전을 추동하며 인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는 데 적극 기여하시어온것은 이렇듯 어머니수령님의 높은 뜻을 꽃피우시기 위해 우리 장군님께서 아낌없이 바쳐오신 위대한 헌신과 승애한 사랑의 세기가 뜨겁게 솟아내었다.

하기에 평양체육관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어제도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매일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평도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갈 불같은 일념이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만드느라 펼쳐지고야말 사회주의명목 을 훌륭히 개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몸소 현지에

특히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체육관을 훌륭히 개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몸소 현지에

특히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체육관을 훌륭히 개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몸소 현지에

특히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체육관을 훌륭히 개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몸소 현지에

특히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체육관을 훌륭히 개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몸소 현지에

특히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체육관을 훌륭히 개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몸소 현지에

특히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체육관을 훌륭히 개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몸소 현지에

특히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체육관을 훌륭히 개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몸소 현지에

특히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체육관을 훌륭히 개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몸소 현지에

특히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체육관을 훌륭히 개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몸소 현지에

특히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체육관을 훌륭히 개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몸소 현지에

특히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체육관을 훌륭히 개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몸소 현지에

특히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체육관을 훌륭히 개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몸소 현지에

특히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체육관을 훌륭히 개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몸소 현지에

특히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체육관을 훌륭히 개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몸소 현지에

